

## 한국에서 비혼모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 운 경<sup>†</sup>

이 상 희<sup>††</sup>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중역할을 하는 비혼모의 내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 그들이 경험하는 다층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기존의 선입견들을 판단중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비혼모 중에서 자발적 연구동의를 한 6명의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 순환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혼모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기쁨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등대를 찾아 헤메는 항해사'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었으며, 둘째는 '고군분투하는 나 홀로 초보 보호자'로 오체투지하면서 달려오고 있었다. 셋째, 불편했던 세상의 시선을 윤택유로 만들어 세상의 시선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승화하면서, 넷째는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며 만난 지혜: 나의 복극성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찾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어른이 되어 가는 여정에 서있다고 집약되었다. 나아가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대주제와 소주제를 바탕으로 비혼모의 주체성과 여성심리 및 상담적 함의에 관련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 비혼모, 자녀 양육, 다중역할, 현상학적 연구

† 제 1저자 : 이운경,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수료

†† 교신저자 :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1,

Tel : 02-940-5420, E-mail : sanglee@kw.ac.kr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1991년에는 6.5%에서 2001년에는 11%로, 그리고 2011년에는 3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동우, 2017). 최근 2020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미혼모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미혼 여성은 20,57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4배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21).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방송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연예인의 양육에 대한 방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가 증가하고 특히 증가하는 양육비혼모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성정현, 김희주, 2016). 하지만, 미혼모와 양육비혼모 가족은 지금도 여전히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는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암묵적으로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당하거나 또는 직장에서는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로 인해 퇴사하는 상황에 놓이며,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쉽지 않다. 즉, 성(性)과 결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혼외출산도 증가하고, 민법개정으로 인해 모와 자가 당당히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어도 미혼모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성정현, 김희주, 2016).

한편 미혼모는 미혼모와 혼용되어 사용되어진다. 미혼모(未婚母)는 법적으로 한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혼전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은희, 2009). 미혼모는 상대 남자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결혼하지 않은(未) 상태에서 임신하였거나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문현상, 장영식, 김유경, 전학석, 1994). 결론적으로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거나 분만한 여자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김영신, 2011). 그러나 비혼모가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조건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이정실, 2017).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혼모는 혼전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단지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과 선택에 따른 결혼여부만을 중심으로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정의한다(서정애, 2009). 비혼모는 기혼과 미혼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결혼제도와 무관하게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경우에 따라 혼인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까지 포괄한다(최경화, 2006).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미혼모 대신 부정적이고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여 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추세이다(김영신,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미혼모가 아닌 편견을 배제하는 중립적 의미를 가지는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중 '양육비혼모'는 미혼모 중에서 아이 양육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현재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이정실, 2017; 최선화, 2009). 오늘날 우리사회는 성가치관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혼전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결혼과 무관한 다양한 성적 만남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혼모가 점진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10; 이정실, 2017). 그러나 입양대상 아동부모의 90%가 비혼모인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입양 아동의 수를 보면 점진적으로 그 수가 감소되고 있다(문상호, 2014). 이로 미루어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특히 비혼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진다(양민옥, 201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혼모에 대하여 ‘비혼모(未婚母)’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여자’, ‘사회적인 일탈자’로 보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김혜영, 2013; 성경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며(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여성으로 간주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어진다(김혜영 외, 2009; 김혜영, 2013).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은 유교전통이 아직 남아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비혼모를 개인적 차원의 결함이라는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외국에서처럼 사회전체의 변화와 맥락에서 가족의 한 부류로 수용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필요하며, 또한 지지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이은주, 최규련, 2014).

지금까지 국내의 비혼모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비혼모의 불리한 지위와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고(김정희, 김향미, 2018; 변호순, 최정균, 2016; 이용우, 2017),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비혼모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부분들과

긍정적인 부분들을 함께 통합하여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비혼모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강라현, 2019; 이정실, 2017).

비혼모가 한가족으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에게 경제적 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며, 양육에서의 어려움, 미래와 인생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므로 비혼모의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Kotwal & Prabhakar, 2009). 미국, 캐나다, 호주 및 프랑스에서 비혼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하여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비혼모 가족은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 심지어 재혼가족보다도 빈곤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Nichols-Casebolt & Krysik, 2009). 또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비혼모 연구에서도 재정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ll & Mittlemark, 2009). 따라서 비혼모로서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들에게 일반 워킹맘들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게 된다. 일반적인 가정의 워킹맘들은 가정에 충실한 것을 기본적인 성역할로 이해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일반 가정의 워킹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만하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한다. 반면에, 가정의 경제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비혼모의 경우에는 가정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높은 급여와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중요시하게 된다(Alsave, 2017). 또한, 즐거움을 위한 여가활동을 낭비라고 여기며, 직업을 위

한 활동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Jun, 2018). 이러한 이유로 다중역할을 경험하는 비혼모들은 일반 워킹맘들과는 다른 경험과 내적 세계를 구성하게 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다중역할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균형감 있게 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경우와는 달리 비혼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역할, 원가족 안에서의 자녀 역할, 직장인의 역할, 친구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삶 속에서 그들만의 다중역할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연구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비혼모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임신, 출산경험과 관련된 연구들과 임신·출산과정과 양육·입양결정과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가족관련 등록법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양육비혼모가 증가하면서 양육과 입양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들이다(이정실, 2017). 그리고, 출산양육결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시선이나 차별경험, 출산양육경험, 생애사적 관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김희주, 권종인, 최형숙, 2012; 김혜영, 2013;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이명희, 2008; 허명숙, 2016; 김영신, 2011; 이정실, 2017).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비혼모를 문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살피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거나 단순히 입양과 출산결정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비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체 비혼모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혼모의 비중이 40%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통계청, 2021). 아직도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형태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에서 소수의 비혼모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홀로 양육을 담당하는 비혼모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 워킹맘과는 다른 경험과 의미들을 구성하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깊고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이전에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를 살펴보는 데 적절할 수 있다(Hoyt & Bhati, 2007; Morrow & Smith,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는 문제로써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균형이 잡힌 관점에서 30, 40대에 속하는 일하는 비혼모들이 크고 작은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개개인 내적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어떻게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는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 비혼모의 다중역할과 관련된 경험들은 상당히 개인적이므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참여자들의 세밀한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 발견해야 하므로,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참여자 경험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주제적인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양육 비혼모로서의 경험과 다중역할 경험에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의미를 구성하는지 내면의 경험과 내적 세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비혼모의 삶에서 다중역할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두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비혼모의 다중 역할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참여자 중 과거와 현재 삶의 다양한 역할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30, 40대의 비혼모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비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비혼모이다. 셋째, 현재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혼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에 동의한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자신의 의미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펼쳐내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미세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주면서 풍부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구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접근용이성(Creswell, 2010)이 있는 대상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대상자 선정은 대표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즉 연구 주제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 경험의 순수한 특성을 그대로 분명하게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정실, 2017). 이는 연구 참여자가 서술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

문이다.

위의 선정기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비혼모 지원 단체와 비혼모 지원 시설 담당자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이야기(Storytelling)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세평적 사례 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Miller & Carpenter, 2009)방법과 소개받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강라현, 2019). 연구 참여자에 대한 최종 선정은 연구자가 정한 앞서 기술한 위의 선정 기준에 기초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포화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 및 특성은 표 1과 같다.

### 연구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주요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Creswell, 2007) 연구자의 연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이며,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박사과정 중 질적 연구 방법론 과목과 현상학적 연구방법 관련 워크숍을 이수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상담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1급)이면서 질적, 양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전공 교수 2인으로부터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방법,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감수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생 2명으로 부터 연구과정 중에 지속적인 동료검증을 받으면서

표 1. 연구 참여자의 정보 및 특성

참여자	나이 (출산연령)	직업/ 학력	가족구성원	종교	거주형태	친부와의 관계
1	39 (26)	교사/ 대졸	자녀(14세)	유	자가	사별
2	31 (21)	상담/ 고졸	아버지, 자녀(10세)	유	반전세	연락없음
3	39 (37)	교수/ 석사	아버지, 어머니, 자녀(3세)	유	부모님집	1번/1달 화상연락
4	43 (39)	건축설계/ 대졸	자녀(5세)	무	자가	연락함
5	39 (35)	간호사/ 대졸	자녀(5세)	무	월세	연락함
6	35 (30)	조향사/ 대학재학	자녀(6세)	유	전세	연락안함

수행하였다.

####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진행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의 면담시간 1회 1시간에서 1시간50분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면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COVID-19)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비대면(Zoom)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흐름표(interview schedules)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다중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장면에 대한 개방형질문으로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분석 등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전반에 걸쳐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2명의 지속적인 감수와 상담전공 관련 박사과정생 2명의 동료검증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면담흐름표는 표 2와 같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가 중요하다(Creswell, 2007).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발적인 참여 및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비밀보장의 한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자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설명서를 제시하고 직접 구두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개요 및 참여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465호 제3조에 따라 수집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종료와 학술지 게재 이후에는 파기하기로

표 2. 면담흐름표(interview schedules) 내용

질문내용
1. 출산 전후로 중요하게 다가왔던 나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2. 자녀를 양육하면서 원가족 안에서 어떻게 경험했는가?
3. 직장생활 경험은 어떠했는가?
4. 자녀와 생활하면서 경험은 어떠했는가?
5. 지나온 과정 속에서 돌아보면 경험했던 다중역할은 어떠했는가?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구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면담흐름표에 따라 개방형질문을 시작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가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자는 부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얻도록 노력하였으며,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면담을 진행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육비혼모들이 겪게 되는 다중역할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 연구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원리들이 충실하게 담겨 있는 van Manen(1990)의 연구절차를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하여(권효숙, 2009)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생생한 체험의 본질에 대한 지향성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형성하고 연구자의 선이해를 성찰하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세계와 관점을 새롭게 보기 위해 판단중지(epoché)를 통해 여러 가지 선입견과 가정들을 괄호치기로 묶어내려 하였다(권효숙, 2009). 둘째, 경험을 겪은 대로 탐구하는 자료 수집 단계이다. 이는 실존적 탐구단계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셋째, 해석학적이고 현상학인 반성을 통한 주제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의미단위로 나누고 가능한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는 일상의 생활언어로 핵심 어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핵심어구들의 공통적인 성격을 찾아 대표되는 주제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였다. van

Manen(1990)이 제시한 4가지의 실존체인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을 활용하여 해석의 주춧돌로 삼고자 하였다. 넷째,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글쓰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계로, 연구자가 내적인 반성과정을 거쳐 현상의 의미를 민감하게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여 객관화하는 해석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유혜령, 1998).

이상의 현상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면담하는 과정 동안 참여자의 표정, 비언어적 행동 등을 함께 메모, 기록하여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를 필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화의 내적 의미에 대한 발견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들 중 하나'라고 간주된다(Spradley, 1979). 현상학적 분석의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신경림 et al., 2004). 본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자료수집과 동시에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에서 의미를 파악하며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성을 높이고자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대한 4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는 신빙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이들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 타당도를 높였다(Guba & Lincoln, 1981). 둘째,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적용성은 전이가능성,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를 높이고자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비혼모 2명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경험에 적용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셋째, 신뢰도에 해당하는 일관성(consistency)을 충족하기 위해 질적, 양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2인에게 연구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방법,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수를 받았다. 또한, 상담 관련 박사과정생 2명에게 전반적인 연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검증을 받았다. 넷째, 객관성에 해당하는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가정 등을 배제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면서 끊임없이 판단중지(epoché)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과 최근 방영되어 회자되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 현상

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들과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고자 괄호치기를 하였으며, 판단중지(epoché)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 결 과

유교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비혼모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어떠한 현상이 이들에게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거

표 3. 대주제와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기쁨 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	① 홀로 남은 외로운 1인 결정권자: 동정을 피해 숨어서 느꼈던 죄책감과 냉정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② 멈춰버린 서러움과 두려움에 불안했던 시간들 : 경력 단절과 아르바이트
고군분투하는 나 홀로 초보 보호자	③ 도움 청할 데가 없이 오체투지를 하는 보호자
	④ 절박한 생계형 직장인으로: 버티면서 남과 다르다는 고통스러운 산을 넘어서
세상의 불편한 시선을 삶의 윤희유로 만들어 가는 길: 세상의 시선과 소통	⑤ 가슴으로 우는 아이의 자존감 지킴이
	⑥ 끝까지 품어주는 당신들의 딸이고 형제자매: 언제고 지친 어깨를 기대어도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며 만난 지혜: 나의 복극성	⑦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구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소문에 슬픔과 창피함을 넘어서 챙겨주고 인정하는 시선에 감사와 희망을
	⑧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구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⑨ 나를 성장 시킨 아이와 함께 어른이 되어 가는 여정: 같이 커가는 꽃길 위에서



치면서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비 혼모가 경험하는 내적 삶은 1)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 2) 고군분투하는 나 홀로 초보 보호자, 3) 세상의 불편한 시선을 삶의 윤택유로 만들어 가는 길: 세상의 시선과 소통, 4)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며 만난 지혜: 나의 북극성이라는 주제로 집약해볼 수 있었다. 각각 대주제 및 소주제들을 표 3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대주제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다중역할에 대한 경험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가지의 소주제로 집약해볼 수 있었다.

#### 기쁨 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하여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결단의 시간을 시작으로 그녀들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조그만 애벌레 같은 그런 게 보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고 되 뇌이면서 홀로 남은 외로운 1인 결정권자가 되어 엄마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의 멈춰버린 시간들은 경력 단절과 휴학,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임신부는 '예비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족 안에서 함께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여건이 열악한 비혼모의 경우에는 혼자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생명에 대한 선택과 책임에 따른 무거운 무게 추를 떠안으며 기쁨 보다는 출산 이후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홀로 남아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가

되었다(참여자 1, 2, 3).

#### 홀로 남은 외로운 1인 결정권자: 동정을 피해 숨어서 느꼈던 죄책감과 냉정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비혼모이기 전에는 비혼모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 없고 가족을 형성한다는 개념자체를 갖기 어려웠다. 홀로 결단을 내리고 그 안에서 위로 보다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책임지려 하였다(참여자 1, 2, 3, 4, 5, 6).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임신사실을 주위에 알리기보다는 숨기고 지내면서 태교를 소홀히 한 시간들에 대하여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참여자 1, 2, 4, 5). 정말 현실이 냉정하고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낙태와 입양권 유를 넘어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을 했던 과정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었다.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참여자 1, 2, 3, 4, 5, 6)

얘기하면 위로도 받겠지만, 동정을 받는다는 생각에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감내하고 책임지려 했어요. (참여자 1, 2, 3, 4, 5, 6)

남자친구와 헤어지고서 임신사실을 알고서... 입양을 결정하지 못한 채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 보낼지, 아니면 키워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했던, 약간 경계적인 약간에 그, 딱 가운데 있었거든요... (중략) 출산 직후부터 아이를 보고서 이제 비혼모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참여자 2)

저는 혼자였고, 남자친구는 양친이 살아

계신데...(중략) 그 사람의 형제들이 부모님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중략) '내 동생 앞길 막지 말고 아이 낳아서 너 혼자서 조용히 키우라'고... (중략) '입양시키라'는 얘기도 듣고...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궁 수축이 심하게 오고...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헤어지고... (중략) 남자친구도 '아이를 지우라고... 결국 혼자서 낳아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참여자 4)

헤어졌는데 임신이라서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지울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 (중략) 솔직히 많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중략) 어렵게 얘기를 하고 얘기야빠하고 책임진다 하고서 결혼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때부터 마음이 우울했던 거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중략) 태교라는 거 자체를 별로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고단했어요. 되게 서글픈 거예요, 혼자 산 부인과 가고... 병원 4인실에 보호자 없는 사람이 저 혼자. 다 부모님도 왔다 가고, 남편도 왔다가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저 혼자 인거예요. (참여자 5)

홀로 출산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은 도움을 청하기도 망설여지고, 막상 도움을 청하려 해도 청할 곳이 없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감내하는 과정이었다. 함께 하는 파트너가 있었던 참여자 3, 4, 5, 6의 경우에도 파트너의 의중을 의심하기도 했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휘둘리

도 하였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낙태를 포기하고 '생명을 안에서 키우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외로웠어도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을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으로 경험하였다.

그 작은 아이는 인큐베이터실로 보내고,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죄책감...(중략) 아이를 다시 안으며, 아름다운 생명을 그냥 깊이 생각없이 사라진 존재로 여기려 애썼던 임신초기가 떠올라 미안함에 눈물이 흐르고... 지금은 잘했다고 느끼죠. (중략) (참여자 3)

#### 멈춰버린 서러움과 두려움에 불안했던 시간들: 경력단절과 아르바이트

그녀들은 임신과 함께 매진하던 공부와 일은 잠시 쉬게 되었고, 계획하고 희망하던 진로는 막혀버렸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서러움과 두려움에 불안했던 시간들 속에서 경력단절과 휴학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채워가고 있었다. 합의되었던 임신이라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임신이어도 출산결과와 출산하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지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서러움을 느껴야 했다. 그러면서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표류하며 제자리를 빙빙 돌듯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멈춰버린 시간들 속에서 살기위한 발버둥을 시작하였다.

주위에서는 다들 자기 자리를 잡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런 상황이라  
서러웠어요. (참여자 1)

휴학을 했거든요. 임신을 하고 나서요.  
아이를 키우느라, 아직 직장생활은 거의  
못했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중략) 도움을 받거나 센터나 그런 걸 알  
아보지를 못하고... 거의 닥치는 대로 안  
해 본 아르바이트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했었어요. (참여자 2)

유학중이라 비자연장 기간은 지나고 아  
무것도 못하고 자원봉사도 거절당하고...  
(중략) 비자가 없는 무비자 미등록의 상  
태... 법적 신분도 불안정하고, 일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도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중략) 들어오는 기  
회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 기회를 이렇게 다 놓치고 나이가  
들면서 기회는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참  
여자 3)

애기 태어나서 거의 1년간은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시설도움으로 수급신  
청을 하고... (참여자 4)

#### 고군분투하는 나 홀로 초보 보호자

비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이다. 대개 원가족  
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은 부분도 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윤정혜, 2014).  
경제적 문제는 주요한 스트레스 원이었으며,  
비혼모들의 자기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  
였다(Kotwal & Prabhakar, 2009). 또한, 정신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ll &  
Mittlemark, 2009).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녀들은 오체투지를 하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생계형 직장인으로 자신을 지각  
하기도 하였다.

#### 도움 청할 데가 없이 오체투지를 하는 보호자

외로운 1인 결정권자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  
고 이와 함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기다리는 하나의 생명을 위해 심신을 다하여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 산후조리부터 신생  
아수유, 미숙한 육아, 아이의 수술, 경제적인  
책임, 무엇보다도 수월하고 쉬운 것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서러움  
과 외로움, 비장함으로 비혼모들은 감내하고  
있었다.

아이가 신생아일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못 청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분수토를  
한다든지, 어디가 아팠는데 ... (중략) 당장  
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중략) 정말 그  
때는 혼자서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되게  
막무가내로 아이를 키웠던 거 같아요. 아  
이는 자야 되는데 잠을 안자고 많이 우니  
까, 울면서 재우기도 하고. 아이하고 단들  
이서 지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도움 청할 데가 없다'라는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희생하고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 홀로 초보 보호자는 '나는 엄마이기 때문  
에 책임져야 한다(참여자1, 2, 3, 4, 5, 6)고 되  
뇌이면서 그 시간들을 건너 올 수 있었다. 마  
치 불교에서 온몸을 던져 절을 하는 오체투지  
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들은 엄마가 되어 갔다.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중략) 몸이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몸이 상했고 여기저기 혹이 생겼다고 하고 디스크도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만성 어지럼증도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졌지요. 저랑 맞바꾼 거니까. (중략)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 하나 수월하고 쉬운 게 없었어요. (참여자 1)

혼자서 이제 아이를 계속...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커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중략) 신생아시기에 그때는 혼자서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막 무가내로 약간 아이를 키웠던 거 같은... '도움 정할 데가 없다'라는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참여자 2)

사실 애기 키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혼자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략)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애기를 포기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 때는 '어디다 버리고 도망갈까? ... (중략) 나는 내 갈 길, 내 살길을 갈까?'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애기를 끼고 책임지려고 살게 되더라고요. (중략) 내가 버티긴 버텼구나. 앞으로도 더 견디고 버틸 수 있겠다. ... (중략) '엄마니까 하는 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 '생각했던 것보다 어찌면 내가 더 강하게 사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5)

### 절박한 생계형 직장인으로: 버티면서 남과 다르다는 고통스러움의 산을 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양자 역할에 마치고 바쳐진 것처럼 아이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그녀들은 에너지

를 일터에서 뺏기고 녹초가 되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슬프기도 하였다(참여자 1, 3, 4, 5). 부양자의 역할만이 역할이 아니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지만, 생계형이기 때문에 버텨야 하는 직장인이었다(참여자 1, 3, 4, 5). 참여자들은 치열하게 살아서 경력을 쌓아서 만들고, 장벽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일을 그냥 받아들이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의 평범한 삶을 꿈꾸며,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정부수급 지원을 벗어나) 제가 돈이 없어서 서러운 걸 애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중략) 생계형이기 때문에 버텨야 해요... (중략) 늘 맞벌이 부부나 일반 부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남과 다르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중략) 가장 낮은 곳에서 원래의 모습까지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참여자 1)

라는 말처럼 더 발전하는 나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다. 정말 빛과 같이 느껴지던 정부지원에 그치지 않고 탈수급하면서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도 닮아가고, 어느새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 잘 노는 아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는 아이가 되어 자라났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를 돌보는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정부지원 자격에 미치지 않아 선택의 여지없이 일반 가정과의 경쟁을 하느라 지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워라벨 직장인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수입이 안정적이고, 좀 시간과 여력을 밖에서 덜 투자하

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참여자 3, 5, 6)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2012)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한국에서 일반적인 가정을 영위하는 워킹맘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세계의 긴장 속에 처하여 전력질주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과 가정이라는 부유한 일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비혼모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전력질주는 비혼모에게는 오롯이 혼자 감내하는 생계형 직장인의 절박함이 더욱 묻어났다. 일반적으로 워킹맘의 생활세계는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영역이 투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Nippert-Eng, 1996). 참여자들은 '절박한 생계형 직장인으로' 그 속에서 일반가정의 워킹맘보다 더 치열하게 부양자로서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서서히 자신을 가꾸어 가고 돌보는 새로운 워라벨 직장인으로, 자아실현을 꿈꾸고 실천하는 직장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참여자 1, 2, 3, 6)

세상의 불편한 시선을 삶의 유희유로 만들어 가는 길: 세상의 시선과 소통

한국에서 워킹맘들이 불편한 시선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노성숙 외, 2012)처럼 이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불편한 시선에 비혼모들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를 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나(Starrre, 1992)'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선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노력과

나아가 소통하고자 하면서 시선을 하나의 유희유로 만들어 가는 경험을 마주할 수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렇듯 그녀들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대상이 되는 가족과 친구, 사회에서 지지를 보내면서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 가슴으로 우는 아이의 자존감 지킴이

참여자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보다는 아이에게 가는 시선에 더 마음이 쓰였다. '혼자 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린이집 전학을 요청받기도 하였다(참여자 2, 6). 그녀들은 비혼모에 대한 시선과 따돌림으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몸으로 보여 주어 가르치는 어머니였다. 아이는 엄마가 직장을 가면 '혼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녀들은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참여자 1은 한 번은 퇴근하고서 아파서 홀로 병원 문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아이를 보며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으로 울었다.

많이 친하게 지내도 정작 제일 중요한 여행을 갈 때는 OO이만 쫓 빠져 있더라구요. 아빠가 없으니까, 제일 친한데도 가족 여행갈 때 아예 부르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 (중략)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속상했죠. (중략)... 학교에서도 아빠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엄마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할머니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이가 선생님께 자기는 아빠가 없어서 그러는데,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채울 수 없지만 이제는 둘만의 존재로 채워가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집 저 집을 전전하던 생활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울타리를 아이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었다(참여자 1, 4).

없혀살면 알게 모르게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이집 저집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 (중략) 아이도 '여기 살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이 집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한다는 게...[눈물] (참여자 1)

아이가 '엄마랑 어디 갔으면 좋겠고, 뭐 엄마도 (옆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 뭐 어떤 일도 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중략) ... 요즘에는 '엄마 고마워, 이제 괜찮다'고 안아주거나... 서로서로한테는 정말 서로서로가 의지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중략)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보다는 약간 아이도 같이 부모를 키워주는 거 같은 거예요. 항상 고마운 마음의 존재 (참여자 2)

아이가 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며 붙어서 잔소리하던 엄마에서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는 참여자2는 아이가 친구에게 일을 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일에 대한 자신감과 서로의 존재로 채워가는 울타리를 느낄 수 있었다.

#### 끝까지 품어주는 당신들의 딸이고 형제자매: 언제고 지친 어깨를 기대어도

참여자들은 출산 전에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던 형제자매와 가족이었다. 서로 사느라 바빠 서로에게 등한시하기도 했던 가족이요, 부모형제였기에 출산 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출산 직후 혹은 직전에 알리면서 가족들은 그녀들에게 그리고, 그녀들은 가족들에게 서로의 지친 어깨를 내어줄 수 있었다. 유학하는 동안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참여자 3은 출산 후 귀국하였을 때 몇 년 동안 연락도 뜸하고 만나지 못했던 자식인 자신보다는 아이에게 먼저 눈길을 주는 부모님의 모습에 '변함없이 당신들의 딸'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였다.

여전히 부모님한테 저는 딸인 거고. 애 아빠가 누구든 간에, 관계가 어떻게 어그러졌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 손자다', '내 손녀다'라고 그런 기쁨만 가지고 받아들여주시더라고요. 저 문을 딱 들어섰을 때, [울먹이며] 어머니는 저를 안 바라보고, 한 몇 년 만에 본거죠.. 엄마가 저는 안 보시고 얘기를 먼저 봐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고마웠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눈물] 참 대단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게... (중략) 이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아이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목메임] ... 여전히 부모님은 내가 누구를 만났었던, 무슨 공부를 했던 간에,



내 가치관이 변했던 안변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인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내칠 수 없는. (참여자 3)

아빠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삼촌이지만 든든하게 이제 남자로서 OO이랑 뭐 이렇게 막, 몸으로 놀아주기도 하고. 그럴 때면 되게, 되게 '다행이다. 진짜 가족들이 내 주변에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키웠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참여자 6)

대체로 그녀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소식은 부모님에게 직접 전하기보다는 형제자매를 통하여 알렸다(참여자 3, 6). 그럼에도 지지해주는 부모님은 '우리가 끝까지 품어줄게'하는 거 같아 의지가 되었다.

###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구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소문에 슬픔과 창피함을 넘어서 쟁겨고 인정하는 시선에 감사와 희망을

임신 전에는 연락하기 어려웠던 지인과 친구, 동료들에게 출산 후에 참여자들은 서서히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친한 지인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하기도 하거나 아이의 친한 친구들의 가족동반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세상이 나를 슬프게 만들려 하는 시선과 배려'를 보낸다고 여겨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였다.

친구들은 사실 그 때 많이 정리가 됐었던 거 같아요. 베스트 프렌드로 만날 만나고 지내던 친구도 막상 저의 선택에, 저의 결정에 등 돌리는 친구도 있었고. 일로 알게 된 가벼운 사이여도 그냥 아이가 있다

는 하나로 다시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중략) 출산하고 혼자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왔던 친구는 한 십년 만에 저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해서 '먹고 싶은 거 있냐?' 묻고서 딱 사들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천사처럼 나타났던 거예요. (참여자 6)

인간관계도 비혼모가 아닐 때는 친구들이 결혼 축하한다고, '너 애 낳는 거 축하해' 했던 일이 축하가 아니라, '너 애랑 어떻게 살겠어?'라고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임신을 했고, 내가 원해서 임신을 했는데 '나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이랬더니 축하받을 일이고. 그런데, 내가, '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애를 혼자 키울 거야.' 이랬더니, 축하가 아니라 걱정할 일로 바뀌고. 결혼 유무에 따라서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바뀌고... (중략)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유산을 권유하더라고요. (참여자 4)

그리고 직장에서의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차별이 비혼모의 자립을 방해한다는 결과(성정현, 김희주, 2016)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시선은 그들을 위한 나름의 배려임에도 그렇게 느끼기도 하였고, 직장 내에서의 노골적인 차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양가적인 시선으로 그녀들에게는 다가오기도 하였다.

세상에 정말 비참하다 생각했어요. 어느 여자가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안한 여자가 애를 낳아

가지고... (중략) 솔직히 정말 소문이 안 좋게 돌았거든요. 직장이 되게 보수적이예요... 말도 많고 되게 소문도 안 좋게 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중략) 아는 사람들은 알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도 있고 하니까. (중략) ... 제 삶이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숨고 싶은 거예요. (참여자 5)

하지만, 돌잔치를 열어주는 언니 친구들, 힘들다면서 입양을 권유하던 친구나 지인들이 아이를 홀로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입양을 선부르게 권유한 걸 사과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던 너의 결정은 옳고 정당하다'라고 응원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참여자 1, 2, 3, 6). 나 홀로 양육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홀로서기를 하는 그녀들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은 서서히 포용하고 함께 하는 울타리가 되어 지지를 보여주었다.

베이비 박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참여자 5)

약간 사회에서는 제가 느꼈던 시선, 차별은 많이 안 컸는데, 아이한테 영향이 가는 게 컸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부모참여수업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왜 너희는 아빠 안 데려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중략) 그런데, 학교 들어가면서... (중략)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할머니하고 부모 없이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리

지도 않고 아이도 그걸 이해하고. 이제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참여자 2)

일면식이 없는 사회의 지원이 버팀목이 되어 그녀들 안에서 극단으로 치닫던 육아와 내면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 공공기관과 의료진의 보살핌은 세상을 향한 참여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참여자 1, 2, 3, 4, 5, 6).

(임신)초기에 초음파 찍으러 갈 때부터 의료진들. 꼭 지인이나 친구들 아니더라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 받는 게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중략) 보살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임신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 공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내면의 갈등들이 극단으로 안 치닫게 도와줬어요... (중략) 그 감사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참여자 3)

협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연계해 주셔서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협회를 알면서 확실히 상처를 받았던 그냥 과거의 힘든 상황에서 지체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가 아물고 좋아진 게 아닐까? (참여자 2)

비혼모를 문제로 여겨 발생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모습에 생체기를 받았다면, 보이지 않던 작은 따스한 시선에서 그녀들은 새살이 돋고 세상을 향한 가볍지만

힘찬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며 만난 지혜:  
나의 북극성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오면서 기쁨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등대를 찾아 헤메는 항해사로 시작하여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면서 홀로 양육자의 역할을 감내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과 체력의 두 영역에서 삶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그들만의 생존전략을 만들어 힘든 환경을 지나왔다. 그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북극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항해하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만난 지혜는 무엇일까?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구나!: 당당하게  
편견에 맞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들은 누구도 자신이 임신하기 전에는 비혼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임신과 함께 어려운 결단으로 비혼모가 되기로 결정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아이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장착하게 되었다.

나의 결정의 정당성을 떠벌린 적은 없지만, 은연중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떳떳해요... (중략) 통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비혼모'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개념에 얽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규정되어야지 되는 건가? 싶었어요... (중략)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

요. 남이 함부로 재단하게 놔두어서는 안 돼요. (참여자 3)

지난 시간을 거쳐 오면서 편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참여자 4)

그냥 내가 '나 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센척하고 사는 거 보다는... (중략) '아닌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포장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하고는 삶이 더 편해졌거든요. (참여자 1)

비혼모 이기 전에는 비혼모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내가 비혼모가 되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 정말 현실이 냉정하고 무섭다' 라는 게... 처음에는 당장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는 게 많이 없었어요. (중략) 비혼모 자체를 숨기는 게 나한테 '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비혼모 자체가 나한테 이제 해(害)가 되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비혼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도 나에게 득(得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저한테도 있었던 선입견이 많이 사라진 게 좀 되게, 좀 가장 큰 거 같아요... (중략) 전에는 비혼모를 바라봤던 시선도 그렇고 내가 이제 비혼모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을 아예 못했던 사람이었으면, 적어도 이제는 좀 당당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중략) 이제 아이한테도 '우리가 엄마하고 너하고 단들이 이제 살아 말하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예전에는 진짜 약간 숨어 지냈다가 이제는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좀 당당해진 거 같아요.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도 가지고 있던 비혼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이 그렇지 않다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동정을 피해 숨어서 냉정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현실의 바다에서 홀로 표류하던 외로운 1인 결정권자는 지난한 여정을 지나오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가진 당당하게 편견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결정권자가 되어 주체성을 돋보이고 있었다. 이는 강라현(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비혼모가 삶의 주인공으로서 상승하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기술된 바와 일치한다.

#### **나를 성장시킨 아이와 함께 어른이 되어 가는 여정: 같이 커가는 꽃길 위에서**

참여자들은 혼자 일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혼자서만 잘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고 그런 게 잘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살면서 깨닫게 되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큰 맥락에서 포용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다.

아이와 나를 성장 시켰구나. 크게 했구나 (참여자 1, 2, 3, 6)

저는 확실히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하고, 약간 희망적으로 변한 거 같아요. 제 삶이 지금 막 탄탄대로이거나 그렇지 않은데... (중략) 한치 앞도 모르지만 진짜 OO이랑 같이 커가는 게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꽃길인 거 같아요. (중략)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지만, 지금은 아이가 저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6)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그래도 나 열심히

히 살았구나. 정말 가치없이 막 살지는 않았구나. 나도 엄마로서의 노력은 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5)

되게 감사한 게 아이 때문에 더 빨리 안정된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되게 많이 어른이 됐죠. 어른스럽게 만들어 준 거 같아요... (중략)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배우고 서러움도 느껴보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크게 된 계기. 네, 어른이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참여자 1)

(이전에는) 내 기준으로 보면서 배타적으로 다르다고 하면 쳐내는 게 맞다는 관점에서 보았다면, 지금은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인상이 굉장히 유해했다는 거거든요... (중략) 이렇게 저는 그냥 만족하거든요. 제 현재 삶에... (참여자 3)

겪어왔던 걸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싶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당당해지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아이를 낳고서 인상이 유해지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참여자 1, 3), 아이와 함께 지나왔던 당시에 너무 암울한 것도 있었고 왜 그랬는지 스스로 이해도 되면서 그녀들은 그렇게 지나올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숨어 지내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편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갈

그런 용기가 생겼고 당당해졌다(참여자 1, 2, 4). 더 당당해지고 이렇게 받은 관심과 지지를 누군가한테 나누어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참여자 2, 6)고 하였다. 그녀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삶의 한계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 기대면서 사람들의 도움과 동의를 구하고 함께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참여자 3, 4, 5), 자신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면서 만난 참여자들의 지혜는 당당한 주체성을 가진 자신을 깨닫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자신, 아이와 함께 어른이 되어 가는 여정에 있는 자신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었다.

## 논 의

지금까지 미혼모는 결혼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변화하고 성에 대한 시각과 성 평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비혼모나 비혼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자 부정적인 편견과 시선을 내포하는 미혼모가 아닌 비혼모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의 연구들은 비혼모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관점과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동안은 주로 청소년 비혼모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관점을 확립하기 위해 전체 비혼모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0, 40대의 비혼모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다양하고 넓은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에서 비혼모의 일상생활에서의 다중역할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혼모라는 용어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양육 비혼모의 다중역할을 하면서 개인 내적인 세밀한 주관적인 경험을 오롯하게 담아내고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 기쁨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 2) 고군분투하는 나 홀로 초보 보호자, 3) 세상의 불편한 시선을 삶의 윤택유로 만들어 가는 길: 세상의 시선과 소통, 4)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며 만난 지혜: 나의 북극성이라는 4가지 본질적 대주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 대주제들은 다시 그 아래 세부적인 소주제 9가지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주제들에 대한 핵심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비혼모는 생명의 잉태에 대한 기쁨 보다는 출산 이후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홀로 남아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가 되었다. 절대적인 여건이 열악한 비혼모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생명에 대한 선택과 책임에 따른 무거운 무게 추를 떠안으며 홀로 남은 외로운 1인 결정권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된 세계에 서게 된다. 또한, 임신유지, 출산결정과 출산을 하면서 그동안 해오고 있던 경력도



학업도 멈춰버린 두렵고 불안했던 시간들 위에 서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서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고,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 마치 바다에 표류하며 등대를 찾아 홀로 헤매는 항해사로 경험하게 된다. 아이는 서서히 그 존재로 그들에게 등대와 같은 빛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생명을 만나면서 엄마가 되는 경험은 참여자 스스로에게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사건이었지만, 외적으로 주어지는 절대적 여건의 불리함이 스스로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외로운 결정을 스스로 깨끗하게 선택하였다.

둘째, 도움을 청할 데 없이 외로운 1인 결정권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 오롯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기다리는 하나의 생명을 위해 심신을 다하여 오체투지를 다하며 헤엄쳐 왔다. 산후조리부터 신생아수유, 미숙한 육아, 경제적인 책임, 무엇보다 수월하고 쉬운 것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비장함으로 비혼모들은 감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워킹맘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세계의 긴장 속에 처하여 전력질주를 하고, 일과 가정이라는 부유한 일상을 경험하는 것(노성숙 외, 2012)처럼 비혼모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전력질주는 비혼모에게는 오롯이 혼자 감내하는 생계형 직장인으로서의 절박함이 더욱 묻어났다. 그녀들은 일반가정의 워킹맘보다 더 치열하게 버티면서 부양자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남과 다르다는 고통스러움의 산을 넘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꾸어 가고 돌보는 워라벨 직장인으로, 자아실현을 꿈꾸고 실천하는 직장인

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산층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하였지만, 비혼모들의 경우에는 가정과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더라도 직업 안정성이 있고 급여가 높은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lsarve, 2017).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적이 되면 비혼모의 경우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워라벨을 위한 유연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에서 일반 가정을 이루는 워킹맘들은 불편한 시선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였다면(노성숙 외, 2012), 비혼모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서 자신보다 아이에게로 가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에 가슴으로 울면서 더 마음이 쓰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 지킴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먼저 몸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채울 수 없지만 아이와 둘만의 존재로 채워가는 울타리를 만들어 그 시선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였다. 더 나아가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하도록 독려하면서 함께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면서 불편한 시선을 하나의 운할유로 만들어 가는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녀들은 외로이 시선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닌 그들의 대상이 되는 가족과 친구, 사회에서의 지지를 받으며 서서히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홀로서기를 하는 그녀들에게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사회적 시선이 서서히 그들의 용기와 결단에 대한 인정을 받고 포용된다고 느끼면서 감사와 희망이라는 운할유로 경험되었다. 그들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사회



적 시선이 함께하는 울타리로, 하나의 지지자 원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비혼모를 발생한다고 하는 개인적 결함의 차원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어려움을 넘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변화와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 그녀들을 이해하고 지지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적인 양육자'로 우리 모두의 이해와 포용이 필요한 부분이다(이은주, 최규련, 2014). 가족공동체와 같은 당사자 협회/조직과 사회적 지지의 연계는 비혼모들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손승영, 2017; 장운정, 2017; Ikonen, 2019; Lumino et al., 2017; Morris, 2015).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그녀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오면서 기쁨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엉킨 불안의 바다에서 표류하며 등대를 찾아 헤매는 항해사로 시작하여 모든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면서 홀로 양육자의 역할을 감내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과 체력의 두 영역에서 삶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그들만의 생존전략을 만들어 힘든 환경을 지나왔다. 홀로 다중역할들을 감내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긍정적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선별적으로 초점을 두는 방식은 건강한 개인들의 특성인 자아탄력성, 적응적 인지 도식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볼 수 있었다(노성숙 외, 2012; Morris, 2015). 이 부분은 앞으로 그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

중역할을 하는 비혼모의 내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주관적이고 상호주관적 생활 세계의 의미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기존의 선입견들을 판단중지하고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적인 시작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균형잡힌 시작으로 청소년 비혼모가 아닌 전체 비혼모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30, 40대의 양육 비혼 모가 삶에서 다중역할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생생하게 드러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괄호치기하여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주체성을 생생하게 주관적 경험으로 드러내는 그녀들의 내적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참여자들은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져 가는데 이는 하나의 외상 후 성장으로 이전의 연구결과(임선영, 2017)와 일치된다. 역경 후 성장은 통합되어 변화해가는 심리내적상태를 잘 보여주었다. 삶의 주체로 자신의 복극성을 만나면서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다시 사회에 받은 도움들을 환원하고자 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속에서 체득한 지혜와 긍정적인 인지전략을 통해 상호주관적 자아와 세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연구자는 만날 수 있었다. 환경 세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오롯하게 내면에서부터 주체적인 자신이 되어 스스로의 의미세계를 바꾸어 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홀로 있는 '나'와 사회라는 '우리' 함께의 관계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내-존재'의 생생

한 예로 해석할 수 있었다(Heidegger, 1976). 연구 참여자들의 외부경험을 기술하는 데서 시작하여 서서히 의미세계를 만들어가는 현존재로서의 비혼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해석학적 성찰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현상학적인 환원과 공동체화된 상호주관성의 생생한 구성과정을 거치는 경험이 연구자에게도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양육비혼모들을 돕기 위한 상담적 접근 및 연구와 정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코로나 상황이라는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대면으로 면담이 진행되어 더욱 자세한 비언어적인 묘사에 제한이 따른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연령대를 30, 40대로 한정을 지어 진행하였기에 미성년부터 시작하여 전 연령대로 확장하여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비혼모와의 면담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기에 자녀와 주변인의 관점을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한계로 볼 수 있다. 넷째, 추후에 직업에 있어서 다양성을 부여하여 정규직 여부에 따른 후속 연구를 한다면 조금 더 상세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비혼모 뿐만 아니라 비혼부에 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심리적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상담적 개입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광범위한 활용이 요구된다. 비혼모를 상담하는 데 있어 상담자가 그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을 스스

로 점검하도록 하면서 그 근원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포함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출산을 앞둔 예비비혼(부)모를 위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녀들의 어려움을 공공의 문제로 드러내어 함께 나누고 작은 공동체나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 나누며 해결점을 찾아갈 필요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라현 (2019). 비혼모의 출산·양육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사회 거주 양육비혼모를 대상으로. *여성학연구*, 29(2), 205-236.
- 권효숙 (2009). 현상학적 연구로 나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회한국교육인류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pp.153-162). 연세대학교
- 김동우 (2017). “미혼모의 고통, 자조모임으로 이겨냈어요”, *국민일보*, 5월 4일.
- 김영신 (2011).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5(1), 27-58.
- 김은희 (2009).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김향미 (2018).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 정책. *사회복지법제연구*, 9(3), 109-132.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

- 연원.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김희주, 권중희, 최형숙 (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4), 121-155.
-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56(6), 169-196.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문상호 (2014). "미혼모 정책 따로, 입양 정책 따로 지원금보다 인식개선 우선해야", *조선일보*, 4월 8일.
- 문현상, 장영식, 김유경, 전학석 (1994). *한국가족보건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호순, 최정균 (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1), 1-12.
- 서정애 (2009).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 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8), 404-418.
- 손승영 (2017). 양육미혼모의 당사자 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학연구* 27(1), 35-66.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민옥 (2012).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양육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명희 (2008).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경희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혜령 (1998). *교수매체 환경과 유아의 경험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유선택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8(1), 131-152.
- 윤정혜 (2014). *원가족과 미혼모자의 합가 경험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59-291.
- 이용우 (2017).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97-115.
- 이은주, 최규련 (2014).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30(4), 259-291.
- 이정실 (2017). *비혼모 삶의 경험*.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선영 (2017).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 탐색: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행동치료*, 17(3), 419-443.
- 장운정 (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97-528.
- 최경화 (2006). *양육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 논문.
- 최선화 (2009). 여성복지론. 고양: 공동체.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 허명숙 (2016).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 경험.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sarve, J. (2017). Working it out: strategies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among Swedish lone mother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Policy Press, 6*(3), 325-340.
- Bull, T., & Mittlmark, M. B. (2009). Work life and mental wellbeing of single and non-single working mothers in Scandinavia.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7*(6), 562-568.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Design*. UK: Sage Publications.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idegger, M. (1976). *Vom Wesen des Grundes, Wergmarken*. Gesamtausgabe, Bd. 9.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 Hoyt, W. T., & Bhati, K. S. (2007). Principles and practic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201.
- Ikonen, A. M. (2019). *Navigating through motherhood: Case study of young single mother's resilience during pregnancy and motherhood in Arusha Region*. Tanzania. University of Helsinki Faculty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 Jun, M. (2018). Doing the right? UK lone mothers on benefits and their sense of entitlement to leisure. *Critical Social Policy, 39*(3), 356-375.
- Kotwal, N., & Prabhakar, B. (2009). Problems Faced by Single Mothers. *Journal of Social Sciences, 21*(3), 197-204.
- Lumino, R., Ragozini, G., Duijn, M. van., & Vitale, M. P. (2017). A mixed-methods approach for analy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nchorage of single mothers' personal networks. *Quality & Quantity, 51*(2), 779-797.
- Miller, L. M., & Carpenter, C. L. (2009).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22*(4), 9-12.
- Morris, C. (2015). Considerations of Equality in Heterosexual Single Mothers' Intimacy Narrative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0*(4), 1-11.
- Morrow, S. L., & Smith, M. L. (2000). Qualitative research for counseling psychology.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 199-230.
- Nichols-Casebolt, A., & Krysik J. (2008). The Economic Well-Being of Never-and Ever-Married Single Mother Famili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3*(1), 19-40.
- Nippert-Eng., C. E. (1996). *Home and Work: Negotiating Boundaries through Every day Lif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r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artre, J. P. (1992). 존재와 무[*Letre et le neant*],

(손우성 역). 서울: 삼성출판사. (원전은  
1943 출판).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차원고접수 : 2022. 04. 29.

심사통과접수 : 2022. 06. 27.

최종원고접수 : 2022. 06. 30.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ulti-Role Experiences of Single Mothers in Korea: What is like to live as a 'Single Mom' in Korea?

Lee Woon Kyoung

Lee Sang Hee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ner experience of non-marital mothers who play multiple roles while rearing their children in Korea, describing their living world as it is and interpreting the multiple meaning they experience. This study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o stop judging and understanding existing preconceptions to focus on the subjective world of study participants. Among single mothers who work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hree participants who voluntarily agreed to research interviews. It was intended to derive research results through a circular analysis proces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interviews. According to the study, the meaning of experience in everyday life experienced by single mothers in Korea was as follows. First, she was making her own decisions and choices on her own, while experiencing herself as a sailor looking for a lighthouse in the sea of anxiety mixed with fear rather than joy, and second, she was struggling alone as a novice guardian. Third, sublimating to an effort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s gaze by turning the eyes of the uncomfortable world into a lubricant, the fourth was the wisdom they met over all the big and small waves: they were on their journey to find their own identity and become an Adult with their child. Furthermore, based on the major subjects, we discussed the female psychology and counseling implications.

*Key words* : single mother/mom, child rearing, multiple role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